

# 불가능을 꿈꾸며 가는 길



불교문화클러스터 사하촌을 가다

## 33 만수산 무량사

무소유의 화두를 던지는 은행나무를 보면서 무량사 일주문으로 들어섰는데 가을에 도착한 것처럼 보이는 부부의 손길이 분주하다. 긴 장대를 들고 감나무에서 가을걸이를 하고 있는 모양이다. 손이 닿는 곳까지만 욕심을 부리면 안 되는 것일까. 절집 안에서는 날아가는 새들도 주인이 되도록 감나무 한그루쯤 짧게 익어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무량한 사랑, 무량한 지혜, 무량한 덕이 있다는 것을 알리려 석가모니 부처님이 온 것이니까 말이다.

무량사로 들어가는 길은 불가능을 꿈꾸며 가는 길이다. 셀 수 없는 것을 꿈꾸고 누릴 수 없는 것을 꿈꾸며 가는 길이다. 절집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불비지 않아 꿈꾸며 걸기에 이보다 더할 수 없다. 도솔천을 지나 천왕문 앞에서 당간지주 위에 지고 온 꿈을 잠시 내려놓고 마당에 들어섰다. 아름다운 나무들이 웃을 벗어 쓸쓸함을 덮고 있다. 겨울채비를 끝낸 나무에게서 머문바 없이 마음이 난다.

무량사는 천 년 전의 창건사기를 지닌 절집으로 마곡사의 말사이다. 신라시대에 범일 국사가 창건했다고 전해지나 자세한 것은 알 수가 없다. 마당에 석탑과 석등이 조성된 시기로 미루어 보아 현재 가람의 모습은 고려시대의 것이 아닌가 싶다. 절집 안으로 몇 발짝 들어서자 두 그루의 느티나무가 앞을 막아선다. 아름다운 극락전을 쉽게 보여주지 않는 모양이다. 무량사 극락전은 조선 중기의 건축으로, 단청을 칠하지 않아 고색이 느껴진다. 범주사 팔상전, 금산사 미륵전, 화엄사 각황전, 마곡사 대웅보전과 같이 중층 구조를 이루고 있다. 얇은 기단 위에 높직한 기둥을 세워 아래 부분의 평면을 구성했다. 밖에서 보면 2층이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천장이 풀린 통층이다. 기둥 위에 짜여진 공포는 대표적으로 18세기에 유행하던 기법이다.

무량사 마당은 다른 절집과 다르게 넓다. 마당은 편하게 발을 디디며 생각을 다듬는 곳이다. 잠시만 눈을 팔아도 번뇌의 풀이 자라는 수행생활 중, 느슨해진 자신을 다스리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든다. 만수산 낮은 봉우리 위로 봉계구름이 한가로운 떠간다. 아마도 김시습이 이런 풍경을 보고 '구름이 오고 구름이 제 마음대로 가도 산은 사비를 걸지 않는다'고 노래했는지 모른다. 문득 무량사에 두고 온 시간을 노래한 황동규 시인의 땅초꽃이 떠오른다.

이따금 돌조각이 저절로 굴러내리는 절벽 앞을 걸다가 흰 빨래로 걸려 있는 구름 앞에서 그 흔한 양초꽃 속의 어느 눈썹 섬섬한 양초 하나만 만나 인사를 주고받았는가.  
"듣고 보니 우린 꿈이 같군"  
"꿈이 환했어"

같은 꿈을 같이 꿈 자들이 같은 창살 속에서 같이 흔들리는 그런 곳.  
無量面 淨土리가 없다면.



일주문



천왕문



갈을 따는 사하촌 주민



극락전(보물 제233호)



부도밭



사하촌 만수리

무량사 극락전 당우 안에는 주존불로 아미타불을 모시고 있다. 광명의 부처, 수명의 부처라는 뜻의 아미타불이 계시는 도량이니 무량사 말고 달리 지을 이름이 없었을 듯하다.  
절집을 돌아내려오면서 옛날에 무량사에 머물렀던 진묵 대사가 숲을 누룩으로 만든 차라고 하며 마셨다는 기록이 있어 주막집을 찾았다. 흠 허름한 주

막집이라도 찾으니 싶어 두리번거려다 노신사 권진식 이장님을 만났다. 역시 마을이장님이라 주민들 이야기부터 꺼냈다.  
"지금 마을에는 65호 약 120여명의 주민이 살고 있지요. 옛날에는 근처에 석탄광들이 있어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석탄을 허가 내지 않고 장사하던 시절이라 밀주를 파는 곳도 많이 있었지

요. 주막인심도 좋고 발자국이 많이 나서, 가난하지만 살기 좋은 곳이었지요."  
옛날에는 쇠죽냄새, 마른 솔잎 타는 냄새가 솔 냄새와 함께 익어가는 산골마을이었을 것이라는 상상을 해본다.  
젊은이들은 돈을 좇아서 모두 도시로 나가고 지금은 노인들이 남아 사하촌을 지키고 있다. 만수

리는 상가지역이 형성되어서 활발한 것도 아니고 농토가 넓은 것도 아닌 그냥 부처님의 가피로 살아가는 마을 같다. 마을 사람들의 바람은 없느냐고 묻는 내게 떠나지 못하고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속내를 드러냈다.

"우리 마을 사람들 대부분 절집 땅에 집만 짓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절집에서 조계종의 방침이라고 이주를 하라고 하는데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적은 이주비를 받아서 마을 사람들이 옮길 곳이 없어요. 좋은 방안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갈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서로 입장의 차이는 있는 듯했다.

얼마 전 무량사 진입로 도로가 좁아 확장하려는데, 절집 땅이 들어가기 때문에 무산되었다고 했다. 마을회관 옆에 여름에 쉴 수 있는 정자를 지으려고 군청에서 예산을 받았는데 절집에서 새로운 건물은 지을 수 없다고 하여 집행을 못하고 있다. 서로 타협하여 해법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장님은 시대가 흐르면 생활도 바뀌고 마음도 변하기 마련이라며 진정한 마음을 열었다.

"사하촌이 발전해야 이웃인 절집도 잘 살게 되지요. 그러나 주지스님 차원에서 결정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주지스님 임기가 4년이라 사귀면하면 떠나버려 마음을 쉬는 시간이 부족한 것도 원인이지요. 절집과 마을이 서로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지금은 관심이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무량사는 만수리의 큰집으로서 마음을 열어도 되기도 한단다. 주지스님이 마을 사람들에게 회식을 할 수 있도록 일 년에 두어 번 돈을 내놓는단다. 큰집은 뭔가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을은 사하촌답게 산신제를 정성스럽게 지낸다. 정월 초사흘날 지내는데, 주민들이 얼마씩 각출을 하고 생계복덕을 보아 제주를 뽑는다. 산신당에서 제를 지내고 마을회관에서 음식을 나누고 장승제를 지낸다. 제주가 되는 사람은 설날그믐부터 정월 초사흘까 지 밖에 나오지 않는다. 무진앞에서 스님이 나와 마을의 축문을 읽고 태우며 함께한다. 절집과 사하촌이 함께하는 문화는 여전히 존속하는 것이다.

극락전 서쪽 새로 단장한 작은 전각에 매일당 김시습의 영정이 모셔져 있다. 부도밭에는 시대의 불운을 자신의 가슴에 묻고 스님이 되었던 김시습의 부도도 있다. 부도밭 옆 무진암에는 동네에서 자란 정월 스님이 살고 있다. 마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불심으로 지내고 산다. 주지스님과 연정을 하더라도 머리를 조아리게 된다고 했다. 그것은 본인도 모르게 갖게 된 불심이라한다.

사하촌 사람들은 양순하고 서로를 신뢰하며 산다. 그것은 절집 스님들의 기도공양이 마을에 머무르기 때문은 아닐까. 이 가을 잠시 서운한 마음이 들어 자주 연락을 하지 못했던 지인들에게 전화라도 걸어 마을밥을 일구어야겠다. 잠시 버려둔 발에 무명초가 가득하다. 어리석음을 뽐내내면 무량수불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부여=김삼미(수필가)·본지 객원기자

수제화로 제작      상표등록 614981호, 디자인등록 0407120호, 발명특허 0554383호

## 고무신코 만 행 화

**방한용털신**

- 가격 : 6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검정

**방한용부츠**

- 가격 : 120,000원
- 규격 : 220-250mm
- 색상 : 회색, 검정

**최고의 선물**

발,마춤형 제작

**조각무명**

- 가격 : 12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자연색

**사계절단화**

- 가격 : 8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검정

**특 무 명**

지압감상

발명특허권41435

- 통산통 99%
- 가격 : 10,000원

■ 문의 및 주문전화: 02)733-5715, 011-9000-5715  
 ■ 입금계좌 : 농협 063-12-250427(구지민)  
 \*보시 하실 분상담 환영

전국매장

- 부산: 원광사 051)636-7019
- 대구: 연꽃세상 053)426-7300
- 광주: 불교서원 062)226-3056
- 화진: 불교서원 062)228-2870
- 서울: 부산승복 02)738-8407
- 대전: 불교백화점 042)274-3727
- 대구: 불교서원 042)254-8772
- 제주: 김윤경승복 064)724-7999
- 충북(충주): 원광사 불교점 043)846-9091
- 전주: 상운각 063)274-6639
- 경북(예천): 불교서원 054)655-2525

## “사찰난방”

저렴하고 강력한 한열나무보일러가 최고입니다

초대형 나무보일러는 역시 한열테크가 가능합니다

- 수평형이며 연도가 3배수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기행단의 보일러로써 나무를 태운열기가 앞-뒤,위-아랫, 다시 앞-뒤로 열기 3번돌아 열효율이 높습니다.
- 화실이 크고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화실이 크기때문에 길고 굵은 나무를 넣을 수 있어 난방이 편리합니다.
- 연도구조 청소가 쉽습니다. 나무를 태우면서 생기는 목초액이 연통에 붙어 연도를 막히게 하지만 연도 구조를 간단하고 편리하게 만들어 청소가 쉽습니다.
- 롬 스위치가 있어 온도조절이 쉽습니다. 방안의 스위치로 온도조절이 가능하므로 대단히 편리합니다.
- 대형사찰, 복지시설등 200평이상 난방 및 온수가 가능한 기술력과 경험이 있습니다. 200평이상의 대형 공간에도 난방 및 온수 사용이 가능한 검증된 기술력과 경험이 있습니다.

**A/S안내**

**무상서비스**

- 제품 구입일로부터 1년내의 보일러 본체의 부품보장 및 문제 발생시 무상수리 및 무상교환 가능합니다.

**유상서비스**

- 천재변으로 인한 고장
- 전기사용 잘못으로 인한 고장
- 토라 펌프 이상으로 인한 고장
- 본사의 설치도면을 가지고 개인 정비자의 임의 설치로 인한 고장

**서비스 신청요령**

- 매해계좌서 보관
- 보일러에 이상이 있을시 설치 대리점으로 문의

대한민국 업계 최초 발명특허, 실용신안, 국제표준, 기술평가 결정서를 획득한 기업은 한열나무보일러가 유일합니다.

**HYT 한열나무보일러**

주소: 경북 구미시 선산을 완전리 432-29번지  
 전화 054-482-3339 / 휴대전화 016-255-5191  
 공작: 경북 영천시 고경면 용진리 382번지  
 전화 054-333-5191 / 팩스 054-338-1006  
 www.hnboiler.co.kr